

## 전남도, '농촌협약'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 거뒀다

순천시·구례군·해남군·함평군에 5년간 국비 1천200억 원 투입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순천, 구례, 해남, 함평, 4개 시군이 확정돼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미래형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3년부터 착수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 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3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개 시군을 확정했다.

심사 결과 시·도별로 전남과 충남,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3개 시군, 충북·전북 각 2개 시군, 경기·강원 각 1개 시군이 선정됐다.

지난 2020년 공모가 첫 시작한 후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연말까지 평가 시 제출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조정 작업을 거쳐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시군이 농촌협약을 한 후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군별 국비 최대 300억 원 규모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20년)'과 실행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을 반영해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동체 육성은 물론 농촌환경·농업유산·생태관광 등 농촌다움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이번 공모에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된 데는 지난해보다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를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중앙평가의 중요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집중 보완하고, 전문가를 위촉해 10여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해 계획서 내용의 질을 향상한 것이 한몫했다.

또한 시군은 공모 선정 전제 조건인 시군 전담부서 신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탤다. 농촌협약 공모 필수요건인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다 선정을 이끌어 냈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이 2년 연속 최다 선정됐다"며 "이 사업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공급시설 확충 등 결과를 극대화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 광주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광주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6만8000여 가구로, 국비 359억원을 선불형 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현금(시설보호요금)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급여자 및 가구원 수(1~7인 등)에 따라 다르며,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기초생활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75만원이다.

자치구와 각 동에서는 지원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예산집행 준비, 한시인력채용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

자 또는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지급 일자, 수령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사전 안내에 따른 일정에 맞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카드 교부 기간은 29일부터 8월1일까지이고, 지원 취지를 고려해 휴용·사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 사용이 불가하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별도 신청없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므로 서두르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수령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염주테니스장,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 재개장  
 염주테니스장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는 등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22일 재개장했다. 염주테니스장은 지난 1994년 개장 후 장애인테니스 선수들과 비장애인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해 왔다. 2008년 부분 시설 개보수 등을 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러그를 등이 갖춰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 요구가 있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예스오시(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1억원(국비 7억7천만 원, 시비 3억3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테니스 동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 개보수 공사를 마쳤다.

/광주시 제공

건강한 먹거리를 사랑하는  
**곡성 특산품**

섬진강 맑은 물 골짜기의 산들바람자연속 가족마을 곡성에서 생산된 **딸기, 사과, 백세미, 토란** 등 친환경 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360-7183

**곡성 토란**

**곡성 딸기**

**곡성 멜론**

누렁지향 가득한  
**백세미**